

종합

광주區경계 다시 짚어 봤다

票·기득권 때문에... 공청회도 못열어

광주시는 상무·포항·금호·문흥·철만지구 등 외곽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짐에 따라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화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구간 경계 조정에 나섰다.

시는 당시 용역(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방안 연구)을 통해 도출한 구별 조정안을 가지고 경계 조정을 시도했지만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행정구역(자치구)의 위상은 예나 지금이나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다. 특히 민선 이후 선출직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각 구의 이익(인구·면적)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경계 조정안이라 하더라도 의식적으로 피하거나 거부해왔다.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결과적으로 면적이 줄고, 투표와 직결된 유권자가 감소하는 구청의 단체장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구간 경계 조정은

지난 1995년 광산구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서구와 남구로 편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동구와 서구 등 2개 구 밖에 없던 광주시에 1980년 북구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동구는 8개동을 북구로 분할해줬으나 27년이 지난 현재

市, 2001년 구별 조정 용역안 포기

주민 참여 '경계조정추진협'도 제자리

동구의 인구는 북구의 4분의 1도 채 못된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타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와 북구의 경계 조정 움직임은 계속돼왔다.

송광은 북구청장은 경계조정과 관련,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경계조정에는 공감하지 못한 민선 단체장으로서 북구의 일부를 다른 구로 떼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등은 부정적인 태도가 강하다. 경계조정시 동구로 편입되는 동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유권자 감소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광대 광주시장 은 최근 동구청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표를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市, 2001년 구별 조정 용역안 포기

주민 참여 '경계조정추진협'도 제자리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구 풍향동과 두암3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경계조정의 결렬들은 주민들이 아니라 시의원과 구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북구)은 곧바로 성명을 통해 "구간 경계조정"의 가장 큰 원칙은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각 자치구의 상황과 행정 수요 등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구 일

산적한 걸림돌

부지역을 떼주는 형태의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북구회의의 한 의원은 "주민들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데,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행정 구역을 바꾸는 경계조정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동구가 북구 풍향·두암3동을 편입시키기 위해 올 초 시와 동·북구 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계조정추진협의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와 함께 해당 동의 유력 인사나 주민자치위원 및 사회단체 회원 등 특정 지위 또는 역할을 맡고 있는 주민들은 수년 이상 유지해 온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경계 조정에 반감을 갖고 있다.

또한 자신을 입장에서 볼 때, 행정구역을 바꿔야 할 시급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어느 구에 속하든 상관 없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미온적인 입장도 경계 조정을 더디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서울대 "2008년 입시안 강행"

"내신 1, 2등급 만점 적용" ... 교육부선 제재 대상 강조

서울대가 17일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교육부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방침을 변화가 없다"는 강경방침을 천명했다.

주요 사립대의 정시모집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문제로 불거진 정부와 대학 간 마찰 국면이 서울대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2등

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입시안은 예전보다 더욱 학생부 중심의 입시 경향이 강화됐으며 ▲9월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등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입시안을 바꾸는 것은 공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입시안 강행의 이유로 제시했다.

서울대는 아울러 "내신 1~4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사립대 방침을 내신 1·2등급에 만점을 주는 서울대 방침과 동일 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교육부 황인철 대학지원국장 은 이날 "사립대 일부가 1~4등급에 만점을 주겠다고 한 것이나 서울대가 1~2등급에 만점 주겠다는 것 모두 제재 대상이 된다"며 "매 등급마다 점수를 차별화하고 내신 기본 점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태경기자 hwangtae@kwangju.co.kr



日 자위대 구축함 부산항 입항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에 참가할 일본 자위대 구축함 사미다레호(5천100t), 우미기리호(4천200t) 등이 17일 부산항 해군3함대 부두에 입항, 시민공개행사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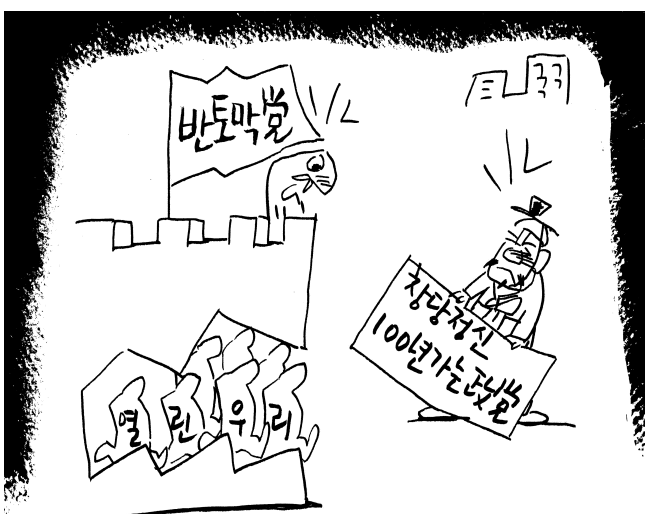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에 참가할 일본 자위대 구축함 사미다레호(5천100t), 우미기리호(4천200t) 등이 17일 부산항 해군3함대 부두에 입항, 시민공개행사를 갖고 있다.

일본 함정은 한국 해군 구축함과 함께 이날부터 일주일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훈련을 갖는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참, 꿈도 야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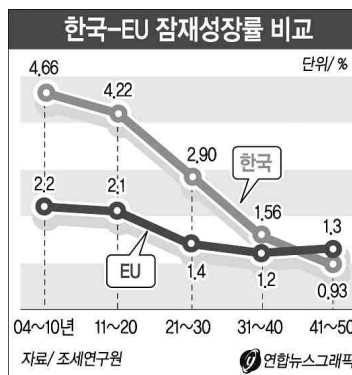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EU회원국 평균치도 못미쳐

조세연구원 보고서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지만 갈수록 그 격차가 줄어들어 2040년에는 오히려 EU 회원국의 평균에도 못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동력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7일, '한국 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OECD와 그 하부기구인 경제정책위원회(EPC) 발표자료 등을 토대로 2050년 까지 우리나라 및 EU 주요 15개 회원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추정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10년 우리나라와 EU의 잠재성장률은 각각 4.66%와 2.2%로 우리나라가 EU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미혼 직장인 77% "맞벌이 희망"

미혼 직장인 77%가 결혼 후에 맞벌이를 희망한다는 조사결과 나타났다. 17일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최근 미혼직장인 1천379명을 상대로 결혼 후 맞벌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7.6%가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 중 결혼 후 맞벌이를 원하는 응답자가 80.2%,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74.5%였다. 맞벌이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자아실현'(38.3%), '생활비나 교육비 마련'(35.8%), '주택자금 마련'(13.9%), '일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아서'(9.2%) 등을 꼽았다.

반면 맞벌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자들은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33.3%), '배우자와 함께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24.3%) 등을 그 이유로 지적했다.

국내 최고층 건물 '타워팰리스' 3차

협찬하는 국내 최고층 건물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다리는 어디에 있을까.

17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 60주년을 맞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건설관련 10대 기록을 선정, 발표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은 삼성물산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주상복합아파트로 높이 264m, 73층이다.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는 7천420m의 부산 광안대교가 차지했다. 국내에서 설립 60년이 넘는 건설회사는 대림산업(1939.10), HHI(1940.9), 삼한기업(1946.3), 중앙건설(1946.7), 극동건설(1947.4), 현대건설(1947.5), 남광토건(1947.7) 등 7개사로 조사됐다.

해외건설 단일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수주액은 103억9천만달러로 동아건설이 83년 11월 수주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였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우측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립니다.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일·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062)220-0524 • 직통: (062)227-9600 • FAX: 227-9500

산행안내
6월 19일(화)
▲광주산행스케치 충북 영동 민주시산 6월19일(화) 08시 영주체육관(중앙병원, 교원공제회관,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T.018-617-0470

6월 24일(일)
▲삼각산악회 경남 함양군 백무봉계곡 6월24일(일) 07시 영주체육관(중앙병원, 교원공제회관, 문예회관후문경유)출발 *선착순 예약 T.017-601-7633

크로바공인중개사
☎432-4560/018-690-3110
(금호동 CBS빌 일신명지상가)
*토지 매도
*금호동 CBS 방송국 옆 200평 1층주거지 대로본 인근/평당3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광주직업교육혁신센터 교육생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 활성화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광주직업교육혁신센터 특화과정을 개설하오니 희망하는 현장 근로자의 많은 신청바랍니다.